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회고투표는 일어나는가? 정치지식과 현직출마 여부를 중심으로

신정섭 | 숭실대학교

| 국문요약 |

본 연구는 기존연구들에서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지역구 유권자들의 회고투표 행태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의 지역구 활동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가 현직 지역구 국회의원 소속 정당 후보에 대한 투표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지 경험적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2024년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분석한 결과, 유권자들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현직 지역구 국회의원의 지역구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현직 지역구 국회의원 소속 정당 후보에게 더 높은 확률로 투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정치적 지식수준이 높은 유권자에게서만 발견되었으며, 현직 지역구 국회의원이 재출마한 지역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가 중앙정치의 대리전을 넘어서 지역구 국회의원의 정치적 책무성을 담보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주제어 | 국회의원 평가, 회고투표, 국회의원 선거, 정치지식, 현직출마

I. 서론

주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는 대의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 한계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주인-대리인 문제를 해결하고 대표자들의 민주적 책무성(democratic accountability)을 확보하기 위한 해결책 중 하나는 유권자들이 대표자들의 활동을 감시·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선거에서 대표자들을 심판하는 것이다(Key 1966). 이러한 맥락에서 현직자의 업적과 활동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표결정을 하는 회고투표(retrospective voting)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기존연구들은 주로 대통령이나 총리 같은 국가최고지도자나 정부여당을 유권자의 회고투표 대상으로 상정하고 경험적 연구를 수행해 왔다.¹⁾ 특히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유권자의 회고투표 대상은 국회의원이 아닌 국회의원이 소속된 정당이나 정당의 최고지도자였으며, 개별 국회의원에 대한 유권자의 회고투표 행태에 대해서는 경험적 분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선출을 위해 혼합형 선거제도(mixed electoral system)를 시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다수의 국회의원을 하나의 선거구에서 최다득표를 한 한 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단순다수제(single-member district plurality)로 선출하고 있다. 가장 최근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전체 300명의 국회의원 중 약 85%에 해당하는 254명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선출하였다. 따라서 대다수의 국회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을 선출해준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정치적 책무성을 지킬 의무가 있으며, 주인-대리인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지역구 단위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의 활동에 기초한 유권자의 회고투표 행태를 경험적으로 분석해 보는 것

1) 회고투표 연구 중에 소수이기는 하지만 야당에 대한 회고적 평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장승진 2016; Stiers 2023)도 있으며, 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회고적 평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연구들(배은진·엄기홍 2016; 신정섭 2019; 장승진 2019)도 있다.

은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2024년 4월 10일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상으로 하여 유권자가 지역구 국회의원의 지역구 활동을 평가하고 이에 기초하여 회고적 투표행태를 보이고 있는지 분석해 보았다. 단순다수제 선거제도 아래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재선을 위하여 지역구 활동에 매진하고 이러한 활동이 재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Cain et al. 1987; Fenno 1978; Mayhew 1974)이 이미 존재하는 만큼 국회의원의 지역구 활동에 대한 유권자의 회고적 평가가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제22대 총선 직후 실시된 EAI 동아시아연구원의 “EAI 22대 총선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경험적 분석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현직 지역구 국회의원의 지역구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현직 지역구 국회의원 소속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기존에 국회의원 투표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던 이념, 정당선호, 대통령 업적 평가 등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구 국회의원의 지역구 활동에 기초한 회고투표 행태는 유권자의 정치적 지식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정치적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이러한 회고투표행태가 명확하게 나타났다. 또한 통계검증 결과가 약하기는 하지만 현직 지역구 국회의원이 재출마한 지역에서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회고투표 행태가 좀 더 높은 확률로 나타났다.

II.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와 회고투표 연구

유권자의 회고투표와 국회의원 선거 투표선택에 대한 연구는 선거연구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지고 큰 주목을 받아온 분야들이다. 그러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원의 지역구 활동에 대한 유권자의 회고적 평가가 투표선택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국회의원 활동에 대한 유권자의 회고적 평가와 투표선택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가 드문 이유는 설문조사 데이터의 한계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회의원 선거가 개별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보다는 정부평가나 중앙정치의 대리전 성격을 가진다는 평가 때문이기도 하다.

기존연구들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선거는 유권자의 개별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보다 유권자의 정당에 대한 선호나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대한 평가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문우진 2022; 장승진 2016). 특히 지역주의, 이념, 정당일체감에 기초한 정당선호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유권자의 투표선택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강원택 2003; 길정아 2013; 이갑윤·이현우 2000). 일례로 지역주의 투표선택의 경향은 너무 강하여, 경북이나 호남지역에서는 특정 정당 소속이기만하면 빗자루가 후보로 출마해도 당선된다는 우스갯소리가 일반에도 널리 알려져 있을 정도이다. 이 우스갯소리는 우리나라에서 후보자 개인의 특성이 유권자의 투표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화된 인식과 달리 후보자 개인의 특성이 국회의원 선거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김한나·박원호 2016; 전용주 2019; 한정택 2007; 황아란 2017).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후보자의 현직 효과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정당요인을 통제하였을 경우에도 현직의원이나 해당 선거구에서 출마한 경험이 있는 후보들이 그렇지 않은 후보들보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를 분석한 연구들은 지역주의, 이념, 정당일체감과 같은 중앙정치 요인에 초점을 맞추거나 후보자 요인 중 현직효과와 같은 제한적인 특성에만 주목하여 왔다. 물론 이러한 요인들이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의 투표선택과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지역구 국회의원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선거 제도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의 활동이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이 거의 발표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아쉬운 일이라 하겠다. 왜냐하면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역구민과 지역구의 이익만을 위해 활동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자신을 선출해 준 지역구 시민들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성과 반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Weir and Beetham 1999, 9). 그리고 유권자들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투표선택을 통하여 지역구 국회의원의 정치적 책임성과 반응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구 국회의원의 활동에 대한 유권자의 회고적 평가에 기초한 투표선택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의 대의민주주의가 얼마만큼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회고투표 연구 중 유권자의 국회의원 평가에 기초한 투표선택에 주목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회고투표를 분석한 연구들은 크게 세 가지 분석대상에 초점을 맞추었다. 첫째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대통령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서 회고투표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기존연구들의 결과가 엇갈리고 있는데, 가상준(2008)과 강원택(2008)은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였으며, 장승진·길정아(2014)는 18대 대선에서 가상준(2023)은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회고투표가 작동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이내영·안종기(2013)는 18대 대통령 선거를 분석한 결과 회고적 투표보다는 전망적 투표가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둘째, 정부여당이나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국회의원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다. 대통령 선거와 마찬가지로 정부여당과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국회의원 선거에 미치는 영향 역시 연구마다 결론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강원택(2012)과 황아란(2012)은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회고투표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장승진(2012)은 19대 총선에서 집권당에 대한 회고투표가 나타났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또한 국회의원 선거를 대상으로 한 연구 중에는 대통령에 대한 회고적 평가가 여당이나 야당에 대한 회고적 평가와 분리될 수 있으

며, 실제로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대통령에 대한 회고평가뿐만 아니라 야당이나 여당에 대한 회고적 평가가 유권자들의 투표행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장승진 2012, 2016, 2020).

셋째, 지방선거에서 나타나는 회고투표 행태이다. 지방선거에서 나타나는 회고투표 행태는 다시 대통령이나 정부여당에 대한 평가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투표선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강신구 2014; 강원택 2006; 신현기·허석재 2015)와 지역경제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평가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투표선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로 나누어질 수 있다(배은진·엄기홍 2016; 신정섭 2019; 장승진 2019). 이들 연구들에 의하면 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투표선택은 대통령이나 정부여당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대한 평가에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회고투표 연구들은 지방선거에 초점을 맞춘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회고투표 연구의 한 분파로 많이 연구되고 있는 경제투표 연구들 역시 국가경제나 개인경제에 대한 평가가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집권여당 후보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주로 분석해 왔다(강우진 2013; 문우진 2018; 이재철 2008; 장승진 2012; Shin 2018).

III.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회고투표와 정치지식, 현직출마 여부

정당선호나 이념보다 후보자 개인의 자질, 특성, 업적에 기초하여 정치적 지지를 결정하는 행태를 학자들은 개인지지투표(the personal vote)라고 불려왔다(Cain et al. 1987, 9). 개인지지투표 연구의 선구자들(Fenno 1978; Fiorina 1974; 1997; Mayhew 1974)은 단순다수제 선거제도로 실시되는 미국 연방하원의원(US Representatives)선거의 특징에 초점을 맞추어 하원의원들의 행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연방하원의원들은 의회활동 시에 소속 정당과 지역구 유권

자들의 이익이나 의견이 충돌할 경우 지역구 유권자들의 의견을 따르는 경향이 많으며, 지역구 유권자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가능한 많은 자원을 지역구로 할당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ayhew 1974).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정책입장표명(position taking), 업적과시(credit claiming), 홍보(advertising)와 같은 방식으로 지역구 유권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Mayhew 1974). 의원들이 이와 같이 지역구 활동에 집중하고 지역구 유권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의원들의 가장 중요한 동기 중 하나가 재선되는 것이기 때문이며(Fenno 1978; Mayhew 1974), 이러한 개인지지투표를 추구하는 의원들의 행태(personal vote seeking)는 선거에서 재선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ain et al. 1987; Carson et al. 2010).

그런데 이러한 개인지지투표 연구는 기본적으로 지역구 유권자가 지역구 의원의 활동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으며, 유권자의 지역구 의원 활동 평가가 투표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에 기초해 있다. 즉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명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단순다수 소선거구제에는 지역구 의원과 지역구 유권자 사이에 회고투표행태에 기초한 선거 책임성 연계(electoral accountability link)가 존재한다는 것이다(전진영 2014, 213; Cain et al. 1987). 흥미롭게도 이러한 가정에 기초한 공급자 측면에서의 개인지지투표 연구는 지금까지 매우 활발히 발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정을 직접적으로 검증하는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²⁾ 특히 지역구 의원의 지역구 활동에 대한 유권자 평가가 투표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직접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활동이나 지역구에 대한 자원할당이 의원에 대한 유권자의 긍정적 인식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결과들은 발표되고 있다(Cover and Brumberg 1982; Parker and Goodman 2009).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개인지지투표와 관련된 연구들이 발표되었는데 공급자 측면에서 전진영(2014)은 지역구 의원들이 비례대표 의원들보다 지역구 자원할

2) 개인지지투표에 대한 최근 연구동향에 대해서는 Zittel(2017)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당과 관련된 의회 활동에 더 집중한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윤종빈(2002)은 유권자 수준의 설문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지역구 국회의원의 지역구 활동 수준에 대한 평가가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호감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역구 국회의원의 지역구 봉사활동에 대한 평가가 높아질수록 국회의원에 대한 호감도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한나·박원호(2016)는 정치자금을 중심으로 국회의원의 지역구 활동이 국회의원에 대한 호감도나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지역구 활동을 위한 홍보비 사용증가는 해당 지역에서 지역구 주민의 국회의원에 대한 호감도 상승으로 연결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지역구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유권자일수록 현직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투표를 하거나 현직 지역구 국회의원과 동일한 정당 소속 후보(현직 국회의원이 출마하지 않은 경우)에게 투표할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후보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후보에 대한 호감도 상승으로 연결되고, 후보에 대한 호감도 상승은 후보에 대한 투표선택 확률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가설1: 현직 지역구 국회의원의 지역구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현직 지역구 국회의원 소속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확률은 높아질 것이다.

본 연구는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의 투표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즉 지역구 국회의원의 지역구 활동 평가에 기초한 유권자의 회고적 투표행태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회고적 투표행태가 모든 유권자에게 항상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오히려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기존의 회고투표연구에 의하면 회고적 투표는 개인의 정치적 지식(political knowledge)수준이나 경제적 상황(economic status) 같은 미시적 조건이나, 책임의 명확성(clarity of responsibility) 같은 구조적 요인에 의하여 다른 수준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Campbell et al.

2010; Gomez and Wilson 2001; 2006; Powell and Whitten 1993; Stiers 2019).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개인수준에서 회고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지식수준과 구조적 요인에서 회고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책임의 명확성에 주목한다. 구체적으로 개인의 정치적 지식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로는 유권자의 정치적 사실 지식(political factual knowledge)수준을 사용하였고, 책임의 명확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현직 국회의원 출마 여부 변수를 사용하였다.

첫째, 정치적 지식은 개인수준에서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변수이다. 유권자의 정치적 지식은 정치적 세련도(political sophistication)로 불리기도 하며 정치에 대해서 유권자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변수이다. 자신이 정치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다고 느끼는 정치적 효능감(political efficacy)과 달리 정치적 지식은 객관적으로 정치를 얼마만큼 잘 알고 있는지 측정하는 변수이다. 이러한 정치적 지식은 당연히 유권자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며, 정치적 지식의 차이는 유권자의 정치적 행태와 태도뿐만 아니라 투표선택에 있어서의 차이도 발생시킨다(Bartels 1996; Delli Carpini and Keeter 1996). 회고투표 연구들 역시 이러한 정치적 지식이 유권자의 회고투표행태에 차이를 줄 것이라고 주장한다(de Vries and Giger 2014; Gomez and Wilson 2001; 2006; Stiers 2019). 왜냐하면 회고투표행태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유권자가 현직자(incumbent)의 활동에 대해서 회고적 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평가를 투표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현직자를 평가하고 평가에 따른 책임 귀인(responsibility attribution)을 연결시켜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정보나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Gomez and Wilson 2001; 2006). 비록 회고투표가 낮은 비용으로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는 투표행태(Downs 1957; Key 1966)이기는 하지만 유권자들이 종종 현직자에 대한 회고적 평가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인지적 오류를 범한다는 것을 생각하면(Healy and Malhotra 2013), 정치적 지식이 회고투표행태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주장은 크게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다. 또한 한

국 선거에 있어서도 정치적 지식이 회고투표 행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경험적 증거가 보고되고 있다(김기동 2021; 신정섭 2019).

이러한 맥락에서 대통령이나 정부여당에 대한 회고투표보다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회고투표는 정치적 지식에 따라 더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나 정부여당의 활동이나 업적에 대한 정보보다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이다. 대통령이나 정부여당이 어떤 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이러한 정책이 어떠한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미디어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러나 특별한 거물급 정치인이 아닌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의 활동과 활동에 대한 평가는 일반 미디어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없다. 따라서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역구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였고, 이러한 활동이 어떻게 평가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구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수준의 정치적 관심과 지식이 필요하다. 더욱이 국회의원 선거를 대통령이나 정부여당이 아닌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정치적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는 인식 역시 더 높은 수준의 정치적 지식을 요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웠다.

가설2: 정치지식 수준이 높아질수록 지역구 국회의원의 지역구 활동평가에 기초한 회고투표 행태는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유권자의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회고투표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현직자의 재선 출마 여부에 주목한다. 회고투표는 기본적으로 현직자에 대한 보상과 처벌 매커니즘(reward and punishment mechanism)을 가지고 작동한다(Key 1966). 현직자가 재직기간 동안 잘 하였다고 판단하면 현직자를 선거에서 재선임하고, 현직자가 재직기간 동안 잘 못하였다고 판단하면 다른 후보에게 투표하여 현직자를 심판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직자의 존재 여부는 회고투표의 책임귀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회고투표에 있어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이다(Abramowitz et al. 1988; Campbell et al. 2010). 또 다른 측면에서 회고투

표는 전망투표(prospective voting)를 위한 도구이다(Downs 1957; Fiorina 1981). 즉 선거의 본질은 과거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대표자를 선택하는 것인데,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미 일어난 과거를 평가하여 미래를 판단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직자가 출마하지 않는다면 같은 정당 후보라고 하더라도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 근거로 삼을 과거의 행적이 없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회고투표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Campbell et al. 2010, 1084). 이러한 측면에서 장승진(2017)은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경제회고투표가 잘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5년 단임 대통령제라는 제도적 특징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단임제의 특성상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현직자가 항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회고투표가 나타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물론 현직자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회고투표는 나타날 수 있다. 5년 단임 대통령제인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에서도 회고투표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 한다.³⁾ 현직자가 없는 경우에도 회고투표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정부운영과 정책의 책임을 개인이 아닌 정당에 돌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같은 정당 소속 후보라면 기본적으로 이념과 정책적 성향이 유사하기 때문에 현직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유사한 정책과 활동을 할 것이라고 예측하여 전망적 회고투표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현직자가 있을 경우에 회고투표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이미 이론과 경험적 증거를 통하여 뒷받침되고 있다(Campbell et al. 2010; Nadeau and Lewis-Beck 2001).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지역구 활동 평가에 기초한 회고투표가 현직자 존재할 때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 예측하였다.

가설3: 지역구 국회의원의 지역구 활동 평가에 기초한 회고투표 행태는 현직자가 출마한 경우에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3) 앞 장의 기존문헌 검토부분을 참고하기 바란다.

IV.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가설 검증을 위하여 EAI 동아시아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제22대 총선 직후 실시한 “EAI 22대 총선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설문조사 데이터는 2024년 4월 12일부터 16일까지 전국의 만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을 통한 웹조사(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url발송)를 통해 수집되었으며 표본크기는 1,528명이었다.

한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총 254개의 선거구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이 선출되었는데, 본 연구가 활용한 EAI 설문조사에서 최소 한 명 이상의 응답자가 있었던 선거구는 250개였다. 응답자 비율이 가장 많았던 지역구는 “관악구갑”과 “용인시을”로 각각 15명이었으며, 응답자가 없었던 4개 지역구는 “서초구갑”,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보령시서천군”,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었다. 지역구별 평균 응답자 숫자는 6명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선거구 재획정으로 인하여 기존 현직자의 소속 정당을 특정하기 어려운 선거구를 제외하고 243개 선거구에 대해서만 분석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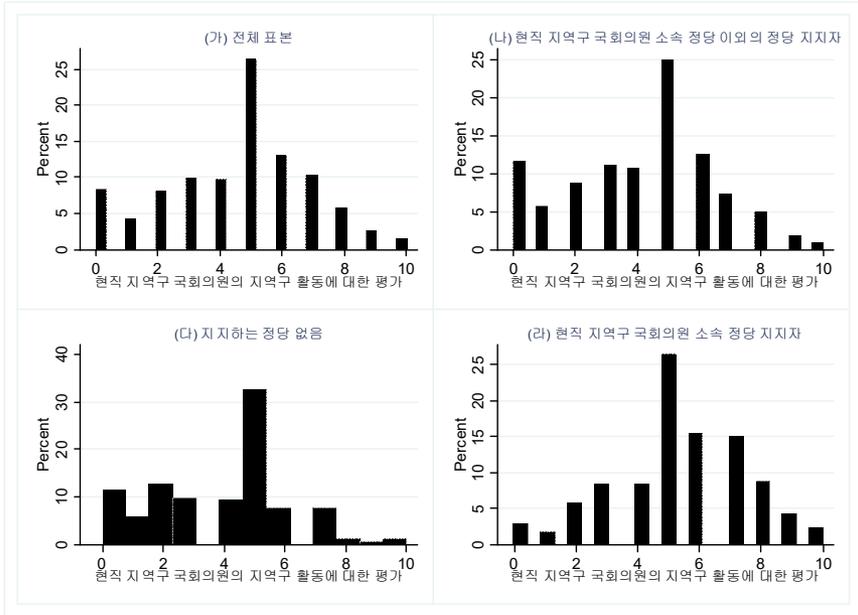
종속변수는 유권자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투표선택으로, 현직 지역구 국회의원 소속 정당 후보에게 투표한 경우에는 1,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으로 측정하였다. 기존연구에 따라 무투표자들은 제외하였다. 통계검증 모델로는 다수준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다수준 모델을 사용한 이유는 종속변수인 현직 지역구 국회의원 소속 정당 후보에 대한 투표여부가 선거구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나 정부여당에 대한 회고투표와 달리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회고투표는 지역구의 다양한 차이에 따라 다른 변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다양성을 모두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선거구별 차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거구를 집단수준 변수로 하여 다수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독립변수는 현직 지역구 국회의원의 지역구 활동에 대한 유권자 평가이다. 현

직 지역구 국회의원의 지역구 활동에 대한 평가는 응답자에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투표한 지역)의 현 지역구 국회의원의 지역구 업무활동에 대해서 0(매우 못함)에서 10(매우 잘함)까지 평가하도록 질문하였다.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구 활동평가는 물론 개인의 정당일체감과 같은 정치적 성향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의정활동 평가와는 다르게 직접적으로 현재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발전이나 의원의 민원처리, 주민접촉 등과 같이 보다 직접적인 경험을 통하여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교적 객관적인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국회의원의 지역구 활동에 대한 평가가 정당일체감과 같은 정치적 성향으로부터 얼마나 독립적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유권자의 정당일체감에 따른 국회의원 지역구 활동평가 분포를 살펴보았다.

<그림1>은 유권자의 지역구 국회의원의 지역구 활동에 대한 평가 분포를 보여준다. (가)에서 나타난 전체표본의 분포는 중도인 5점을 기준으로 정규분포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유권자의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가 유권자의 정당일체감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나) 현직 소속이 아닌 다른 정당에 정당일체감을 느끼는 유권자, (다) 무당파, (라) 현직 지역구 국회의원 소속 정당에 정당일체감을 느끼는 유권자로 표본을 나누어 지역구 국회의원의 활동에 대한 평가 분포를 살펴보았다. 만약 정당일체감에 의하여 유권자의 지역구 국회의원 활동평가가 크게 편향되게 분포된다면 유권자의 지역구 국회의원의 지역구 활동에 대한 평가 변수를 독립변수로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림1>에서 보면 비록 (나), (다), (라)가 완전히 유사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전체표본을 보여주는 (가)의 정규분포 그래프와 크게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유권자의 지역구 국회의원 활동평가가 정당일체감과 같은 정치적 성향에 완전히 종속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림1〉 유권자의 지역구 국회의원의 지역구 활동에 대한 평가 (21대 국회)



본 연구는 가설2와 가설3에서 유권자의 정치지식과 현직 국회의원의 출마 여부에 따라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회고투표 정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따라서 유권자의 정치지식 수준과 현직 국회의원의 지역구 출마 여부 변수를 측정하여 통계분석에 사용하였다. 현직 국회의원의 지역구 출마 변수는 현직이 출마한 경우 1, 출마하지 않은 경우는 0으로 측정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총 243개 선거구 중 현직이 출마한 곳은 148개, 현직이 출마하지 않은 곳은 95개였다.

유권자의 정치지식을 측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정치지식은 정치적 세련도(political sophistication)로 불리기도 하며 유권자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포함하기도 한다. 또한 유권자의 정치적 지식을 측정함에 있어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정치지식을 유권자에게 사실지식(factual knowledge)을 물어보는 것으로 측정하였다(Delli

Carpini and Keeter 1996). 정치지식을 측정하기 위한 문제는 총 4문제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2024년 국가예산규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로 선출하는 국회의원의 숫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참여 최소 연령, 현재 국무총리의 이름을 객관식으로 질문하였으며 각 문제에 대한 정답 개수를 합하여 0개에서 4개까지 5단계 연속변수로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현직 지역구 국회의원 소속 정당 후보에 대한 투표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구체적으로 통제변수는 기존연구에서 우리나라 유권자의 투표선택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정당일체감, 자가정치이념과 같은 정치심리학적 변수와 더불어 성별, 연령, 교육수준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사용하였다. 정치심리학적 변수들의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특성상 현직 국회의원의 소속 정당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구에 따라 현직 국회의원의 소속 정당에 따라 변수조작을 다르게 하였다.

첫째, 대통령 직무수행평가의 경우에는 0(부정)에서 10(긍정)까지로 측정되었는데, 현재 대통령의 소속 정당이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지역구 현직 국회의원의 소속 정당이 국민의힘인 경우에는 변수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다른 정당인 경우에는 변수를 반대로 뒤집어서 사용하였다. 둘째, 정당일체감의 경우에는 응답자가 가깝게 느낀다고 응답한 정당이 지역구 현직 국회의원이 소속된 정당과 같은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으로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치이념의 경우 0(진보)에서 10(보수)까지로 측정되었는데, 지역구 현직 국회의원의 소속 정당이 국민의힘인 경우에는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더불어민주당이나 진보정당 소속인 경우에는 반대로 전환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숫자가 큰 것이 지역구 현직 국회의원의 소속 정당의 이념과 가까운 이념을 가진 것으로 변수조작하였다. 기존의 투표행태 연구에서 많이 사용된 출신지역 변수의 경우에는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정당일체감, 정치이념 변수들과 상관관계가 너무 높아 다중공선성 문제(multicollinearity) 때문에 제외하였다.

V. 연구결과

본 연구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의 지역구 국회의원의 지역구 활동에 대한 평가가 현직 지역구 국회의원 소속 정당 후보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설을 수립하였다. 또한 이러한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유권자의 회고투표행태는 유권자의 정치적 지식수준과 현직 지역구 의원 출마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조건부 가설을 추가적으로 수립하였다. <표1>은 이러한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수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1> 현직 지역구 국회의원 소속 정당 후보에 대한 회고투표

	모델1 (null 모델)	모델2 (기본모델)	모델3 (결합모델)
Fixed part of the model			
절편	-.112(.065)	-4.697(.514)	-3.416(.637)
지역구 활동평가		.115(.038)***	-.182(.097)*
지역구 활동평가×정치지식			.101(.035)***
정치지식			-.311(.177)*
지역구 활동평가×현직출마			.132(.078)*
현직출마			-.716(.405)*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181(.033)***	.175(.033)***
정당일체감		3.473(.221)***	3.505(.225)***
정치이념		.226(.053)***	.224(.053)***
성별(남성)		-.141(.178)	-.249(.186)
연령		.008(.006)	.006(.006)
교육수준 (4년제 대학 재학 이상)		-.034(.185)	-.062(.188)
Random part of the model			
선거구 수준 variance	.457(.107)***	.520(.205)***	.528(.204)***
ICC	.060(.026)	.094(.057)	.078(.056)
Log-likelihood	-913.504	-461.324	-454.197
표본 수	1,326	1,275	1,275

참고: *P<0.1, **P<0.05, ***P<0.001

<모델1>은 다수준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일반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중 어떤 것이 더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한 모델이다. 즉 선거구에 따라 현직 지역구 국회의원 소속 정당 후보에 대한 지역구 유권자의 투표확률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만약 null 모델에서 Likelihood Ratio(LR) 검정이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고 ICC 값이 0에 가깝다면 다수준 모델보다 일반 회귀분석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통계검정결과에 따르면, Likelihood Ratio(LR) 검정 수치는 95% 신뢰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ICC 값 역시 0.06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수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선거구별로 유권자가 현직 지역구 국회의원 소속 후보에 대해서 투표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선거구별 차이를 통제해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모델2>는 가설1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조건부 가설을 위한 결합변수(interaction terms) 없이 지역구 활동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만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른 통제변수와 함께 각 변수가 현직 지역구 국회의원 소속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확률을 계산한 것이다. <모델2>에서 지역구 활동평가 변수는 99% 이상의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양의 회귀계수를 보여주고 있다. 즉 유권자가 현직 지역구 국회의원의 지역구 활동평가를 긍정적으로 할수록 현직 지역구 국회의원 소속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정당일체감, 이념과 같은 부분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나타났다는 점에서 일반의 생각과 달리 국회의원 선거가 단순히 중앙정치의 대리전이 아니며 지역구 유권자가 지역구 정치인에 대한 정치적 책무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기존연구에서 발견된 것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정당일체감, 정치이념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특히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변수가 유의미하게 나왔는데, 기존연구에서 주장한 것과 같이 우리나라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가 지역

구 국회의원에 대한 회고투표뿐만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회고투표 성향도 보여 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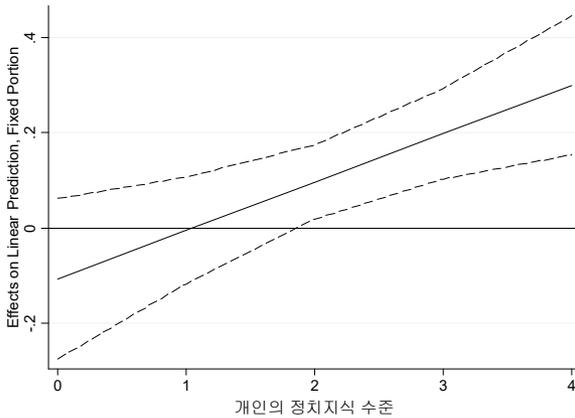
<모델3>은 지역구 국회의원의 지역구 활동평가에 기초한 회고투표 행태가 유권자의 정치적 지식수준과 현직출마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두 개의 결합변수를 포함한 다수준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이다. 먼저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회고투표 행태가 정치적 지식수준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가설2를 위하여 검증하기 위하여 포함된 결합변수인 “지역구 활동평가×정치지식” 변수는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양의 계수를 보여주고 있다. 즉 정치지식이 높아질수록 지역구 활동평가와 현직 지역구 국회의원 소속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확률 사이의 양의 관계가 강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역구 활동평가와 정치지식 변수가 모두 연속변수(continuous variable)이기 때문에 회귀계수를 직접 해석하기보다는 한계효과 그래프를 사용하여 검증하는 것이 더 적절한 방법이다.

<그림2>는 <모델3>에 기초하여 정치지식 수준에 따라 지역구 활동평가가 현직 지역구 국회의원 소속 정당 후보 투표에 미치는 한계효과와 변화를 보여준다. 유권자의 정치지식 수준은 0점에서 4점까지로 측정되었는데, 유권자의 정치지식 수준이 2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지역구 활동에 기초한 현직 지역구 국회의원 소속 정당 후보에 대한 회고투표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치지식 수준이 2점을 넘어가면서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회고투표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의 지역구 활동에 대한 평가가 현직 지역구 국회의원 소속 정당 후보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정치적 지식 수준이 높아질수록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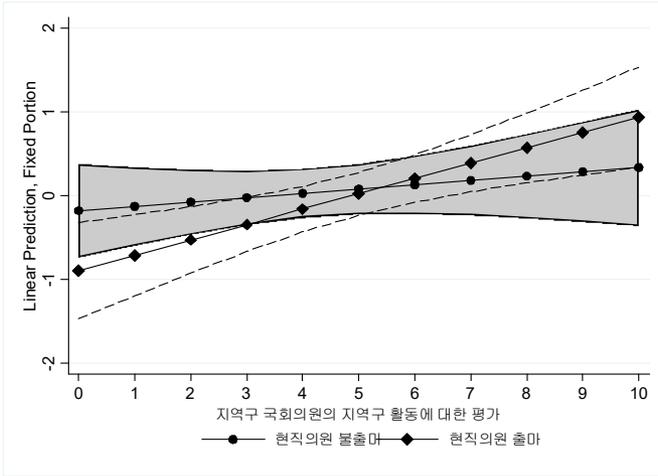
한편, <모델3>은 현직출마 여부에 따라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회고투표 행태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3을 검증하기 위해서 결합변수인 “지역구 활동평가×현직출마”변수를 모델에 포함시켰다. 결합변수는 양의 계수를 보여주고 있으며 95% 신뢰수준에서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지만 90% 신뢰수준에서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엄격하게 해석한다면 지역구 국회의원의 지역구 활동평가에 기초한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회고투표 행태는 현직 국회의원의 출마여부와 관계없다고 할 수 있지만, 통계분석의 신뢰수준을 약간 낮춘다면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회고투표는 현직이 출마한 경우에 더 명확하게 나타난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림3>은 현직출마 여부에 따라 지역구 국회의원 활동평가가 현직 지역구 국회의원 소속 정당 후보에 대한 투표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보여준다.

<그림2> 정치지식 수준에 따른 지역구 활동평가가 현직 지역구 국회의원 소속 정당 후보 투표에 미치는 한계효과 (95% 신뢰수준)



<그림3> 현직출마 여부에 따른 지역구 국회의원 활동평가가 현직 지역구 국회의원 소속 정당 후보에 대한 투표에 미치는 영향 (95% 신뢰수준)



<그림3>에서 원과 음영으로 처리된 그래프는 현직의원이 불출마한 경우이며, 다이아몬드와 점선으로 표시된 그래프는 현직의원이 출마한 경우이다. 현직의원이 불출마한 경우와 비교해서 현직의원이 출마한 그래프의 기울기 각도가 좀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즉 지역구 국회의원의 지역구 활동 평가에 따라 현직 지역구 국회의원 소속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한계효과의 변화가 현직자가 출마하지 않은 경우보다 현직자가 출마한 경우에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두 그래프의 기울기의 차이가 크지 않고 신뢰구간이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회귀계수를 통해 해석한 것과 같이 현직출마 여부에 따른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회고투표 행태가 크게 차이 난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이번 총선이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대한 정부심판론이 강하게 나타난 선거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현직효과가 강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 놀라운 일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지역구 활동평가에 기초한 현직 지역구 국회의원 소속 정당 후보에 대한 회고투표에서 현직효과는 매우 제한적으로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VI. 결론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는 대부분의 국회의원이 지역구 단위에서 선출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개인에 대한 평가보다는 국회의원이 소속된 정당과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 크게 영향을 받아 왔다. 또한 지역주의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영남과 호남의 대부분의 지역구에서 동일한 정당의 후보가 지속적으로 당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크게 벗어난 선거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평가가 매우 낮은 상황에서 실시된 이번 선거에서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 전체 254석의 지역구 의석 중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61석을 확보하였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90석을 획득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국회의원 선거의 특성상 중앙정치나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대한 평가가 선거의 모든 결과를 지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지배적이지는 않지만 현직효과와 같은 후보자 개별 요인이 유의미하게 국회의원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들이(한정택 2007; 김한나·박원호 2016; 황아란 2017)이 지속적으로 발표되어 왔다. 또한 지역주의나 정당선호 구도에서 불리한 후보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하는 경우 역시 종종 나타나 왔다. 이번 제22대 총선에서도 서울도봉갑의 김재섭 후보나 마포갑의 조정훈 후보처럼 정당선호 구도에서 불리한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지역주의나 정당요인과 같은 거시적 변수 이외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자의 투표선택에 영향을 주는 후보자 중심 요인에 대한 연구가 조금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선거가 대부분 지역구를 기반으로 하여 실시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대통령이나 정부여당이 아닌 지역구 국회의원의 활동에 기초한 회고투표 행태가 나타나는지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직후 실시된 EAI의 설문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이념, 정당일체감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유권자

의 지역구 국회의원의 지역구 활동에 대한 평가는 현직 지역구 국회의원 소속 정당 후보 투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의 지역구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현직 지역구 국회의원 소속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유권자 중 유의미한 숫자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회고투표 행태를 보여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이러한 통계적 결과가 현실정치에서 유의미한 실제적 효과(substantial effect)로 관찰되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실제 선거에서는 다른 지배적인 변수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 투표선택에서 국회의원의 지역구 활동에 대한 평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는 것은 선거가 매우 박빙인 경우에는 이 변수가 당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회고투표는 유권자의 정치지식 수준과 현직출마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우선 현직출마 여부에 있어서는 통계해석의 관용성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데, 통계해석 수준을 낮춘다면 현직 지역구 국회의원이 출마한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활동에 대한 회고적 투표 행태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크다고 볼 수는 없겠다.

그러나 정치적 지식수준은 명확하게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회고투표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지식수준이 낮은 유권자들에게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지역구 활동에 대한 평가가 현직 지역구 국회의원 소속 정당 후보 투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정치적 지식수준이 높은 유권자들에게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지역구 활동에 대한 평가가 현직 지역구 국회의원 소속 정당 후보 투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의 지역구 활동을 평가하고, 이러한 평가에 기초하여 투표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정치적 지식과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시민들이 정치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정보를 습득할수록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를 통하여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책무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회고투표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와 개인지지투표에 기초한 국회의원의 지역구 활동 행태에 대한 연구까지 다양한 분야에 함의를 전달할 수 있다. 첫째, 회고투표 연구에 있어서는 회고투표의 대상이 대통령이나 정당 단위를 넘어 지역구의 개별 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다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선거가 단순히 중앙정치의 대리전이 아니며 후보 개인의 특성과 개별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적 책무성을 확보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개인지지투표에 기초한 국회의원 지역구 활동 행태에 대해서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중심 활동과 선심성 예산할당(pork barrel)의 동기가 분명히 존재함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가상준. 2008.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2007년 대통령선거에 미친 영향력 분석.” 『현대정치연구』 1권 1호, 33-57.
- 가상준. 2023.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 『한국정치학회보』 57집 4호, 37-57.
- 강신구. 2014. “지방선거: 지방정부의 구성을 위한 것인가? 중앙정치 대리전인가?” 『오토피아』 29집 2호, 65-95.
- 강우진. 2013. “제18대 대선과 경제투표: 경제성장에 대한 정책선호의 일치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7집 5호, 213-233.
- 강원택. 2003. 『한국의 선거정치: 이념, 지역, 세대와 미디어』 서울: 푸른길.
- 강원택. 2006. “2002년 지방선거의 정치적 의미: 중간평가 혹은 대선 전초전?” 『한국정치연구』 15권 2호, 61-83.
- 강원택. 2008. “2007년 대통령 선거와 이슈: 회고적 평가 혹은 전망적 기대?” 『의정연구』 14권 1호, 31-58.
- 강원택. 2012. “왜 회고적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을까? 2012년 국회의원 선거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46집 4호, 129-147.
- 길정아. 2013.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정당일체감: 유권자의 투표선택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22권 1호, 81-108.
- 김기동. 2021. “정치지식과 경제투표.” 『한국정당학회보』 20권 2호, 5-38.
- 김하나·박원호. 2016. “국회의원의 지역구 활동과 정치적 결과: 19대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사용내역을 중심으로” 『의정논총』 11권 2호, 117-143.
- 문우진. 2018. “경제투표, 선거심판과 민주주의: 경제에 대한 객관적·주관적 평가와 전망이 여당후보 지지에 미치는 영향.” 『평화연구』 26권 2호, 5-44.
- 문우진. 2022. “국회의원 후보의 당선 결정 요인 분석: 경제상황, 대통령 지지율, 선거시점, 정당지지율과 후보의 개인배경.” 『의정연구』 28권 3호, 116-148.
- 배은진·염기홍. 2016. “한국 지방선거에서의 경제투표?: 광역단체장 선거를 중심으로 한 경험적 분석” 『21세기정치학회보』 26집 2호, 77-97.

- 신정섭. 2019. “2018년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나타난 회고투표 행태: 정치적 책입할당, 정치적 지식, 소득수준을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29집 2호, 1-22.
- 신현기·허석재. 2015.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현직지지 요인에 관한 연구: 2014년 6·4지방선거의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를 대상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7권 2호, 57-77.
- 이갑윤·이현우. 2000.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요인의 영향력: 14대-16대 총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0집 3호, 146-164.
- 이내영·안종기. 2013. “제18대 대통령선거와 회고적 투표: 왜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집권정부에 대한 회고적 평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나?” 『한국정당학회보』 12권 2호, 5-36.
- 이재철. 2008. “17대 대통령 선거에서의 경제투표: 유권자의 경제인식과 투표결정.” 『현대정치연구』 1권 1호, 111-136.
- 윤종빈. 2002. “국회의원과 선거구민의 관계연구: 현직의원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6집 4호, 177-191.
- 장승진·길정아. 2014. “제18대 대선의 투표선택에 대한 방법론적 재검토: 한국 유권자는 정말로 전망적투표를 했는가?” 『한국과 국제정치』 30권 3호, 1-28.
- 장승진. 2012. “제19대 총선의 투표선택: 정권심판론, 이념 투표, 정서적 태도” 『한국정치학회보』 46집 5호, 99-120.
- 장승진. 2016. “제20대 총선의 투표선택: 회고적 투표와 세 가지 심판론.” 『한국정치학회보』 50집 4호, 151-169.
- 장승진. 2017. “한국 선거에서의 회고적 투표: 이론과 현실” 『미래정치연구』 7권 1호, 35-59.
- 장승진. 2019. “한국 지방선거의 다층적 회고적 투표: 2018년 광역자치단체장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18권 1호, 5-27.
- 장승진. 2020. “유권자들은 총선에서 누구를 언제 심판하는가? 제21대 총선에서 나타난 조건부 회고적 투표” 『한국정치학회보』 54집 4호, 83-105.
- 전용주. 2019. “후보의 선거 경쟁력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 를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29집 4호, 23-41.
- 전진영. 2014. “국회의원의 대표유형에 따른 정책적 관심과 영향력의 차이분석: 제18대 국회 의원발의안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23권 2호, 211-234.
- 한정택. 2007. “한국 현직 국회의원의 재당선 요인 분석: 제14대부터 제17대까지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17집 3호, 73-99.
- 황아란. 2012.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투표행태: 긍정적·부정적 정당태도와 회고적·전망적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28권 4호, 133-159.
- 황아란. 2017. “국회의원선거와 현직의 직·간접적인 효과: 제20대 총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51집 4호, 123-146.
- Abramowitz, Alan I., David J. Lanoue, and Subha Ramesh. 1988. “Economic Conditions, Causal Attributions, and Political Evaluations in the 1984 Presidential Election” *Journal of Politics* 50(4): 848-63.
- Bartels, Larry M. 1996. “Uninformed Votes: Information Effects in Presidential Election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0(1): 194-230.
- Cain, Bruce and John Ferejohn, and Morris Fiorina. 1987. *The Personal Vote: Constituency Service and Electoral Independenc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ampbell, James E., Bryan J. Dettrey, and Hongxing Yin. 2010. “The Theory of Conditional Retrospective Voting: Does the Presidential Record Matter Less in Open-Seat Elections?” *Journal of Politics* 72(4): 1083-1095.
- Carson, JL, G. Koger, MJ Lebo, and E. Young. 2010. “The Electoral Cost of Party Loyalty in Congres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4(3): 598-616.
- Cover, Albert D., and Bruce S. Brumberg. 1982. “Baby Books and Ballots: The Impact of Congressional Mail on constituent Opin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6(2): 649-663
- de Vries, Catherine E., and Nathalie Giger. 2014. “Holding Governments Accountable? Individual Heterogeneity in Performance Voting.”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53(2): 345-362.

- Delli Carpini, Michael X. and Scott Keeter. 1996. *What Americans Know about Politics and Why it Matter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Downs, Anthony. 1957.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New York: Harper and Row.
- Fenno, F. Richard. 1978. *Home Style: House Members In Their Districts*. New York: Harper Collins Publishers.
- Fiorina, Morris P. 1974. *Representatives, Roll Calls, and Constituents*. Lexington: Lexington Books.
- Fiorina, Morris P. 1977. "The Case of the Vanishing Margins: The Bureaucracy Did It"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1(1): 177-81.
- Fiorina, Morris P. 1981. *Retrospective Voting in American National Elections*.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Gomez, Brad T. and Matthew Wilson. 2001. "Political Sophistication and Economic Voting in the American Electorate: A Theory of Heterogeneous Attribu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5(4): 899-914.
- Gomez, Brad T. and Matthew Wilson. 2006. "Cognitive Heterogeneity and Economic Voting: A Comparative Analysis of Four Democratic Electorat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0(1): 127-145.
- Healy, Andrew, and Neil Malhotra. 2013. "Retrospective Voting Reconsidered."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16(1): 285-306.
- Key, V.O. 1966. *The Responsible Electorat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Mayhew, R. David. 1974. *Congress: The Electoral Connect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Nadeau, Richard, and Michael S. Lewis-Beck. 2001. "National Economic Voting in U.S. Presidential Elections." *Journal of Politics* 63(1): 159-181.
- Parker, David C. W. and Craig Goodman. 2009. "Making a Good Impression: Resource Allocation, Home Styles, and Washington Work." *Legislative Studies Quarterly* 34(4): 493-524.

- Powell, G. Bingham, and Guy D. Whitten. 1993. "A Cross-National Analysis of Economic Voting: Taking Account of the Political Context."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7(2): 391-414.
- Shin, Jungsub. 2018. "Comprehensive Retrospective Voting in Mixed Electoral Systems: Evidence from the 2016 Korean Legislative Election" *Japanese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9(2): 250-268.
- Stiers, Dieter. 2019. "Political Information and Retrospective Voting." *West European Politics* 44(2): 275-298.
- Stiers, Dieter. 2023. "How Do Voters Evaluate Performance in Opposition?" *Government and Opposition* 58(4): 725-744.
- Weir, Stuart and David Beetham. 1999. *Political Power and Democratic Control in Britain*. London: Routledge.
- Zittel, Thomas. 2017. "The Personal Vote" In *The Sage Handbook of Electoral Behavior Vol. 2*, edited by Kai Arzheimer, Jocelyn Evans, Michael Lewis-Beck, 668-687. CA: SAGE Publishing.

투고일: 2024.09.22.	심사일: 2024.11.20.	게재확정일: 2024.11.21.
------------------	------------------	--------------------

Does Retrospective Voting Occur for District Representatives in the National Assembly?

Shin, Jungsub | Soongsil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the retrospective voting behavior of Korean voters towards their National Assembly representatives. Specifically, it empirically examines whether voters' evaluations of the local activities of their representatives influence their vote choices in the legislative election. By the analysis of the 2024 Korean legislative election, it is found that the more positively voters evaluated the local activities of their incumbent district representatives, the more likely they were to vote for the party candidates of those incumbents. However, this phenomenon was only observed among voters with a high level of political knowledge and was particularly strong in districts where the incumbent representatives ran for re-election. This suggests that legislative elections in South Korea can function as a means to hold district representatives politically accountable.

Key Words | Evaluations of Representatives, Retrospective Voting, the Korean Legislative Elections, Political Knowledge, Incumbent Running